

코로나19 바이러스 어린이집에서 더! 안전하게 소독하기

모든 살균·소독제는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독성을 가지며
특히, 어린이는 살균·소독제 성분 노출에 취약 ('20.6.3. 환경부)



공용물품과 **손이 많이 닿는 곳**은 **하루 2번 이상 소독**해요.
(전화기, 테이블, 문고리, 손잡이, 팔걸이 등 물건 표면)



청소와 **소독 전·중·후**에는
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해요.



아이들의 입과 손에
소독제가 닿지 않도록 조심해요.



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
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해요.



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적신 천 등으로
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요.

* 더욱 자세한 소독방법은 어린이집용 코로나19대응지침의 환경소독을 참고해주세요.

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의 방역관리에 감사드립니다.
더 건강한 어린이집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건복지부



행정안전부



질병관리청